

광양·여수·순천·보성 '바닷길 관광' 활성화 손 잡았다

테마여행 10선 6권역 거버넌스 출범
해의 시장 공략 글로벌 마케팅 주력
미식·웰니스 등 5개 분과 위원 위촉



광양·여수·순천·보성 등 4개 지자체가 참여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 거버넌스'가 지난 8일 광양라호텔에서 공식 출범했다.

광양·여수·순천·보성이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 거버넌스'를 출범, 글로벌 마케팅에 나선다.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8일 광양 라호텔에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6권역 웰레회의'를 열고 긴밀한 네트워크 수행을 위한 거버넌스를 공식 출범했다. 광양시와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이 포함된 6권역 거버넌스는 미식·웰니스, 광역교통, 글로벌마케팅, 홍보마케팅, 관광수용 태세 등 5개 분과로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관광사업자,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미식·웰니스 분과에 김태희 경희대 교수, 글로벌마케팅 분과에 변정우 경희대 교수, 관광수용태세 분과에 심원섭 목포대 교수 등 각 분과에 자문위원을 뒤 전문성과 조정 기능을 확보했다. 광양시는 올 연말에 건립될 광양관광협업센터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분과 및 전체 모임을 정례화해 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고, 6권역 시·군과 함께 해외 관광시장 브랜드 포지셔닝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에 주력할 방침이다. 무안과 김해 등 지방의 국제공항과 연계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웰니스·미식관광 등 남도바닷길

만의 특화된 자원을 토대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 관광 수용 태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찾아가는 해외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을 통한 사업 성과 극대화와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구축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3~4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추진하는 5개년 사업이다. 광양시는 그동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의 하나로 남도살이 체험마을 정비사업, 사계절 매화길 조성, 섬진강 자전거길 쉼터 조성, 운동주 시정원 조성 및 콘텐츠 보강사업 등을 추진했다. 또 '남도바닷길 미식관광 콘텐츠 개발 및 상품 운영', '남도바닷길 웰니스 콘텐츠 개발 및 상품 운영'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관광이 멈춘 시기에 4개 시·군의 관광 사업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며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관광모델 창출과 지속가능한 상생관광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드론 띄워 매실 농장 해충 잡는다



광양시가 드론을 활용해 매실에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을 방제한다. <사진> 1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4000만원을 들여 드론 전문업체에 의뢰해 광양지역 친환경 매실 농가를 대상으로 복숭아씨살이좀벌을 방제하기로 했다. 방제 지역은 봉강면과 옥곡면, 다압면 등 모두 4곳으로 면적은 18ha에 달한다. 매실 해충인 복숭아씨살이좀벌은 매실 속에 알을 낳으며 수확 시기인 5월 매실이 노랗게 물러지며 떨어지는 피해를 준다. 특히 친환경 농법으로 매실을 재배하는 농가는 7~8번씩 친환경 재료로 만든 농약으로 방제를 하지만, 해충이 줄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양시는 작목반별로 드론 방제를 한 뒤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제철소 임직원들이 8일 어울림체육관 대강당에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에게 학용품 등 16종의 물품을 담은 희망키트를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학용품 박스 '희망키트' 900명에 전달

포스코1%나눔재단 후원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이시우)는 최근 미래 희망인 아이들의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담은 '희망키트'를 제작해 900명에게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양제철소 임직원 90여 명은 지난 8일 어울림체육관 대강당에서 포스코 경영이념인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실천을 위해 필통, 색연필, 노트 등 학용품 16종을 담은 희망키트를 만들었다. '희망키트'는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17곳과 다문화, 장애 아동, 쉼터 아동 등 900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포스코1%나눔재단이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기탁한 금액으로 제작비용 전액을 후원한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의 기부와 회사의 매칭 그랜트로 운영되는 비영리 재단이다. 광양제철소는 지난 2017년부터 학용품 등을 담은 희망키트를 3400명의 지역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는 등 학생들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안다"면서 "희망키트를 전달받을 미래세대 아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즐겁게 지원 봉사했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별곡, 청년이...'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선정

청년센터 개소 취업교육·컨설팅

광양시는 전남도가 주관한 '2020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공모에 최종 선정돼 7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는 지역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인구인 20대부터 40대까지의 젊은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시책 발굴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에 참여한 전남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 2차 발표회, 3차 최종 평가까지 총 3단계 심사와정을 거쳐 총 10개 시·군을 선정했다. 광양시는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인 '광양별곡, 청년이 살리리다' 사업을 통해 인구유입과

청년들의 복지·문화교류 등 다양한 지원과 정책을 제공하는 복합 청년서비스 공간인 '청년센터'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8월 '청년센터' 개장 시점에 맞춰 운영하게 될 '광양별곡, 청년이 살리리다' 사업은 청년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 어울림 장터 활동을 지원하고, 진로 등 취·창업에 고민하는 청년에게 취업교육과 컨설팅을 위한 취업 울인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광양시 청년센터는 디지털대장간·창업공간과 청년일자리카페 등을 갖추게 되며, 현재 4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이번 사업은 일자리 제공 등 젊은세대 감소의 주원인을 해결하는 시범적 접근"이라며 "인구 유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광양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광양항만공사, 광양항 배후부지 업체 임대료 감면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항 입주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광양항 배후부지를 임차해 영업하고 있는 업체들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의 10~20%를 깎아준다. 공사는 배후부지 입주업체는 조건 없이 임대료

1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은 최대 20%까지 줄여 줄 계획이다. 광양항 배후부지에는 7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항만과 연관된 업체도 임대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광양 구봉산 전망대 관광공사 '야간관광 100선' 선정



광양 구봉산전망대(사진)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야간관광 100선'에 포함됐다. 구봉산 전망대는 봉수대가 있던 해발 473m 높이에 세워졌다. 백운산과 이순신대교, 광양제철소, 광양항, 여수산단, 남해대교, 순천왜성 등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정상에 설치된 메탈 아트 봉수대는 특수강과 LED 조명으로 매화를 형상화해 이순신대교·여수산단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야경을 뽐낸다. 한반도 지형과 비슷한 산책로나 봄이면 장관을 이루는 진달래, 철쭉 군락 등 볼거리도 다양하다. 구봉산전망대는 '야간관광 디렉터리북'에 실리고 야간관광 국제포럼과 야간관광 테마 여행주간 등을 통해 소개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군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를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